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 성서 윤리

유경동 *

【주제어】 포스트 코로나, 성서 윤리, 질병, 치유, 공동체 윤리

【요약문】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성서에 기록된 질병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윤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인류 문화적인 관점에서 질병의 특성이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성서 윤리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을 살피고, 그리고 질병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 윤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안한다.

필자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질병을 영어권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결론으로 구약에서의 질병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적 구분과 연관이 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그려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질병은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으로 예수님은 질병으로 소외된 이들을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 윤리

으로 품고자 하는 사랑의 전형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람직한 공동체 윤리의 정신은 전체 구성원의 통합에 있으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연민과 사랑과 실천이 현대 교회에 바람직한 질병에 대한 대안이 됨을 강조한다.

I. 들어가는 말

지난 3년여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로 통일함)이 기독교 세계관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는 코로나를 종식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접촉성 질병의 특성을 가진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중심으로 모인 전통적인 교회 공동체 생활과 대면 형식의 선교와 전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순교의 각오로 공동체 예배를 직접 모여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대면으로 대체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전자는 반이성적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였고, 후자는 신앙이 없는 자세라고 비난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 코로나 진정기에 접어들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관점이 성서적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한국 학계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성서 윤리적 관점에서 발표한 논문이 몇 편 있는데, 교육학적 방법이나 교회 경영, 공동체, 또는 상담 분야에서 연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의 내용을 분류하고, 이를 사례별로 유형화한 후, 기독교 신앙 공동체 윤리를 제시하는 본 논문은 학계에 그 나름대로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있

다고 생각하며, 특히 질병을 마주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¹⁾

본 논문은 성서에 기록된 질병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윤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체 윤리를 획일적인 교리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지고 인류 문화적인 관점에서 질병의 특성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구약과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신약에 나타나는 질병의 내용을 살피고, 그리고 질병에 대처하는 신앙 공동체 윤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안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결론으로 구약에서의 질병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적 구분과 연관이 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그려지고 있지만, 신약에서의 질병은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질병으로 소외된 이들을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으로 품고자 하는 정신이 중시되었음을 강조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동체 윤리의 정신은 전체 구성원의 통합에 있으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연민과 사랑과 실천이 현대 교회에 바람직한 질병에 대한 대안이 됨을 강조하도록 하겠다.

II. 인류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질병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식은 그 해석에 있어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존 필치(John

1) 참고로 DBpia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을 검토한 결과, 종교학/신학 분야에 107편의 논문이 있으며, 그중 성서와 관계된 논문이 몇 편 눈에 띄지만, 질병을 유형화한 내용 내용은 없다. <https://www-dbpia-co-kr-ssl.proxy.mtu.ac.kr:8443/> [2023. 05. 22. 최종 접속].

Pilch)는 고대 문헌에 나타난 질병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당 시대 문화와 인류학적인 맥락에서 질병을 분석해야지, 현대 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²⁾ 고대 문헌에 기록된 병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 방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에 초점을 맞춘 다분히 개인적이고 유동적인 정의였다고 필치는 강조한다.³⁾

신구약 성경과 연관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질병 혹은 전염병의 문제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부정함’(impurity)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주요한데, 이츠하q 페더(Yitzhaq Feder)는 정함(purity)과 오염(pollution)이라는 상징적 해석은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 페더에 따르면, 전염이라는 것은 병자(source)와 접촉자(target)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병이 옮기는 것을 말하지만, 중요한 이슈는 전염을 단순히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 혹은 사회적 경멸 의식에 바탕을 둔 심리적인 혐오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⁵⁾

같은 맥락에서 존 필치(John Pilch)도 인간 사회는 전통적으로 자신과 타자 사이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질병의 경우 정결과 부정이라는 방식으로 서로를 구별하였다고 설명한다.⁶⁾ 필치의 설명에 의하면, 인류학자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은 말라리아, 홍역, 그리고

2) John J. Pilch, "Diseas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IB)*, vol. 2: D-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7), 135-136. <https://archive.org/details/newinterpetersd0002unse> [2023. 05. 22. 최종 접속].

3) 앞의 글, 135.

4) Yitzhaq Feder, "Defilement, Disgust, and Disease: The Experiential Basis of Hittite and Akkadian Terms for Impurit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36/1 (2016), 99.

5) 앞의 논문, 99-100.

6) Pilch, "Disease," 138.

매종(yaws) 등과 같은 전염병 혹은 질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불행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병리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종교, 그리고 나병과 같이 문화적으로 터부시되는 관점에서 형성된 ‘문화적인 질병’(cultural disease)을 두려워했다고 한다.⁷⁾ 즉,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으로 말미암아 병자가 사회 구성체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 사고방식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필치는 벨기에 학자인 버나드 드 게라돈(Bernard de Gérardon)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신체를 질병과 연관하여 분석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는데, 게라돈에 따르면 성경에 기술되는 인간의 몸은 상징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⁸⁾ 그것은 각각 심장과 눈, 입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의 상징적 연결 부분으로서 심장과 눈이 관계하는 부분은 “감정이 들어간 생각”과 관련이 있고, 입과 귀가 연결된 부분은 “자기표현의 말과 대화”와 연관되고, 그리고 손과 발의 연결 부분은 “목적이 있는 행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⁹⁾ 이와 같은 해석이 시사하는 바는 인간 육체 각 지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각 지체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버지니아 스미스(Virginia Smith)도 고대 사회에서의 위생 관념은 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이 실용적이거나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

7) 앞의 글, 136. 필치는 각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건강과 질병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재앙의 근본 원인이라고 믿게 되면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벌을 감내한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런 맥락에서 고대 지중해에 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악의 눈”으로 다른 이를 보았을 때 질병이 온다고도 믿었다고 예시하고 있다. 같은 책, 138.

8) 앞의 글, 138.

9) 앞의 글, 138. 이 내용은 필치가 인용하는 게라돈의 설명이다. 게라돈의 설명에 관한 별도의 각주는 없다.

10) 앞의 글, 138.

고, 종교적인 정결함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한다.¹¹⁾ “자신을 독약이나, 흙, 그리고 먼지로부터 멀리 하는 것도 유념하여야 할 일이지만,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멀리 하는 것은 대단한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스미스는 강조한다.¹²⁾ 따라서 질병이란 종교적인 관점과 연관하여 볼 때, 단순히 신체에 나타나는 외양적인 형태의 치유가 아닌 문화적인 시대적 관점과 결부된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인류 문화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질병은 형식적으로는 인간의 몸과 연관이 되지만, 종교적 상징체계와 관련하여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사회 계층 간의 분리와 배타성과 같은 속성도 유념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질병 자체를 현대와 같은 병리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질병의 유무로 공동체 성원을 구분하며, 거룩함과 불결이라는 상징체계로 나누는 고대의 문화적인 개념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질병을 이해하는 데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구약성경에서의 질병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질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11) Virginia Smith, *Clean: A History of Personal Hygiene and Pur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8), 29-30.

12) 앞의 책, 29.

첫째, 인간의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이며 육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임을 전제한다. 둘째,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shalom) 관계가 깨질 때, 성과 속의 이분법적인 상징 세계가 심리적으로 개입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질병을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질병의 내용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학자들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유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클린톤 왈런(Clinton Wahlen)은 구약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임을 강조한다.¹³⁾ 왈런은 출애굽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치유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이집트의 질병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이 되며, 치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것으로부터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¹⁴⁾ 히브리인에게 치유는 인간의 몸이 “생기있는 육체와 뼈, 마음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몸의 총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임을 왈런은 부연한다.¹⁵⁾

게라하르트 하셀(Gerhard F. Hasel)도 인간의 건강은 일종의 온전함(wholeness), 완전성(completeness) 그리고 평화(peace)의 의미를 나타내며,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이면서도 정신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속성”을 띠는 조화로운 상태인 샬롬(shalom)이라고 강조한다.¹⁶⁾ 하

13) Clinton Wahlen, “A Biblical View of Prayer and Anointing for Healing,” 1. 참고로 왈런은 그의 논문에서 구약성경의 치유에 관하여 주로 ‘예언자적인 유형’에 관심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언급하는 성경의 인물로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이다. 앞의 논문, 4-11. 한편, 왈런의 논문 내용에서 제목이 암시하는 다양한 기름(oil)으로 치유하는 유형에 관하여서는 일부 언급이 되어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인터넷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지사항이 없음도 밝힌다. https://kupdf.net/download/wahlen-healing-and-anointing_5c22af7ae2b6f5a10ac2275e_pdf [2023. 05. 20. 최종 접속].

14) 앞의 논문, 1-2.

15) 앞의 논문, 2.

16) Gerhard F. Hasel, “Health and Healing in the Old Testament,”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vol. 21, no. 3 (Autumn, 1983), 191. 하셀은 같은 페이지에서

셀은 구약성서에서의 건강은 앞에서 지적한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로운 건강 상태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 연관하여”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¹⁷⁾ 하셀은 구약성서에서 인간의 건강은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때 장수와 연관이 되었으며, 고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팔레스타인 지역)의 깨끗한 강과 동산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었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복을 받고, 먹어야 할 음식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한 것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성을 드러내며, 같은 맥락에서 성도덕도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하셀은 전통적으로 구약성경은 건강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고, 치유자는 하나님(출 15:26)이라는 믿음과 연관이 된다고 설명한다.¹⁹⁾ 그 이유는 치유가 하나님의 용서와 연관되어 있으며(시 41:3-4, 30:3-6; 왕하 20:1-11; 사 57:17-19; 대하 7:14), 이런 맥락에서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구원과도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²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인 샬롬을 지향하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치유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셀은 부연한다.²¹⁾

‘wholeness’의 출처로서 홀라데이(Holladay)를, 그리고 ‘completeness’의 의미 출처로서 브라운(Brown) 외와 콜로(Koehler) 외를, 그리고 ‘peace’의 출처로서 윌킨슨(Wilkinson)을 소개하고 있다. W. L. Holladay, ed.,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371; F.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72), 1022; L. Koehler and W. 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 J. Brill, 1958), 973-974; John Wilkinson, *Health and Healing*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0), 3-8.

17) Hasel, “Health and Healing in the Old Testament,” 192.

18) 앞의 논문, 191-197.

19) 앞의 논문, 197.

20) 앞의 논문, 201.

21) 앞의 논문, 202.

맥스 수스만(Max Sussman)에 따르면, 구약에서 질병을 표현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감염 전염병’과 연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²²⁾

첫째, 수스만은 ‘열’이 나는 질병으로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와 같은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몸이 극도로 아리게 된다”고 정의한다.²³⁾

둘째, 곰팡이나 녹과 연관되는 질병과 연관하여 빈혈이나 황달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²⁴⁾

셋째, 수스만은 유행병으로서는 스가랴 14:12의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를 예로 들면서 아시아 콜레라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²⁵⁾ 수스만은 구약성경 유행병의 예로 네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출애굽 시 애굽에 내린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에 내린 질병(예를 들어, 출 5:3, 9:15; 레 26:25), 팔레스타인 역병(삼상 5-6장), 185,000명이나 전사한 앗수르 산헤립의 군사(왕하 19:35, 사 37:36), 그리고 산헤립의 군사들에 의하여 전염된 히스기야의 병이다(왕하 20:1; 사 38:1; 대하 32:24).²⁶⁾

22) 감염병이란 “특정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 [...] 바이러스 및 세균, 곰팡이 등이 사람의 몸에 침입해 피부와 점막, 혈액 등에 정착하며 점차 개체수를 늘려가는 과정을 뜻”하고, 전염병이란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이 해당 병원체를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다른 미감염자에게 옮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참조, 「궁금뉴스」, 2021년 11월 22일, <https://ask.nunsol.com/39> [2023. 05. 21. 최종 접속].

23) Max Sussman, “Sickness and Diseas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1992), 8. 수스만은 열이 나는 질병과 연관하여 성서에서 레위기 26:14-41; 신명기 28:15-68; 마태복음 8:15; 마가복음 1:31; 누가복음 4:38-39; 요한복음 4:52; 사도행전 28:8을 예로 들고 있다. 앞의 글, 8-9. <https://archive.org/details/anchor-bible-dictionary-6-volumes/page/n1/mode/2up> [2023. 05. 21. 최종 접속].

24) 수스만은 구약성경에서 신명기 28:22; 열왕기상 8:37; 예레미야 30:6; 아모스 4:9; 학개 2:17; 역대하 6:28을 예로 들고 있다. 앞의 글, 9.

25) 앞의 글, 9.

26) 앞의 글, 9.

넷째, 기생충에 의한 전염병으로서는 “더운 기후와 특히 위생이 불경하거나 음료수가 오염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헤롯(행 12:23)의 죽음과 연관이 되었다고 보며, 우물에 뚜껑이 없어서 기생충의 오염으로 보는 불뱀 사건(민 21:6-9), 이스라엘이 탈취한 여리고 성을 버리게 된 것 또한 식수의 오염으로 보고 있다(수 2:9-11; 왕상 16:34; 왕하 2:19-23).²⁷⁾

수스만의 설명에 의하면, ‘피부와 머리카락에 문제가 생기는 전염병’ (레 13:2, 13:32, 25:5, 25:11; 욥 14:19)으로서는 여섯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문둥병(레 13:5-8; 14:2, 34, 55; 왕하 15:5-7; 대하 26:19-21 등), 욥의 피부병(욥 2:5, 8; 7:3-4, 5; 9:17; 30:17, 20-21, 30 등), 모세의 나병과 같이 손이 하얗지는 경우(출 4:6-7), 미리암의 나병(민 12:10), 나아만 장군의 나병(왕하 5:1), 그리고 대머리(사 3:24; 겔 7:18; 암 8:10; 왕하 2:23; 레 13:40-41) 등이다.²⁸⁾

신경계통과 관련하여 수스만은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과 같은 질병과 관련된 경우로 술을 마시고 십 일 후에 갑자기 죽은 나발의 경우(삼상 25:36)나 얼굴 근육의 마비와 연관이 되어 “말이 어눌하게 된” 후 죽게 된 외경에 나오는 알키무스(Alcimus, 마카베오1서 9:55)나 필로파터(Philopater, 마카베오3서 2:22), 그리고 시편 137:5-6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의 경우도 같은 신경계통의 질병이라고 수스만은 설명한다.²⁹⁾

27) 앞의 글, 9-10.

28) 앞의 글, 10-11.

29) 앞의 글, 11-12. 수스만은 ‘신경계통의 질병’으로서 신약성경과 관련하여서는 마비나 중풍(마 8:5-8, 9:2-8; 막 2:2-11; 눅 5:18-26), 베테스다 연못의 환자(요 5:2-9), 그리고 룻다의 애니아(행 9:32-35)가 그 예가 된다고 설명한다(앞의 글, 11).

다넬 칸(Dan'el Kahn)의 설명에 의하면, 열왕기하 18-19장에 나오는 산헤립과의 전쟁에서 산헤립 군대의 멸절(왕하 19:35)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전염병’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출 8:2; 12:13; 민 8:19 참조), 헤로도투스는 이를 쥐로 인한 전염병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고 부연한다.³⁰⁾ 같은 맥락에서 스가랴서 14:12에서 언급되는 재앙 또한 콜레라 전염병 증상과 유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¹⁾

폴 악테마이어(Paul J. Achtemeier) 등은 성경의 질병을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간략하면 그것은 각각 (1) ‘이유가 특정되지 않은 질병’(레 13장; 왕상 17:17; 왕하 5:1; 막 1:30; 5:25), (2) ‘자연적 질병’(왕하 4:38-40), (3) ‘하나님에 의한 병’(삼상 5:6-12; 왕하 6:18; 시 38편), (4) ‘죄로 인한 병’(신 28:22, 27-28, 35, 59-61; 민 12장; 참조, 왕하 5:20-27; 민 16:41-50; 삼하 12:15-18; 고전 11:29-30; 행 12:21-230), 그리고 (5) ‘악한 영’(삼상 16:14-15; 대상 21:1; 욥 1:6-12; 2:1-6; 고후 12:7-8; 막 1:35, 3:22-26, 7:25; 눅 13:16, 32)에 의한 질병 등이다.³²⁾

위와 같은 구약성경에서의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점은 질병에 대한 상징체계와 연관된 성(聖)과 속(俗)의 개념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특히 레위기는 질병의 문제를 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적 상징이 되는 ‘거룩’과 연관시키는데, 레위기 13-14장에 나오는 ‘나병’(leprosy)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존 필치에 따르면 성서학자들과 병리학자들은 이 레위기의 본문들

30) 학자들은 이러한 헤로도투스의 해석이 당시 그리스 신화 문학 패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Dan'el Kahn, "The War of Sennacherib Against Egypt as Described by Herodotus II 141," *Journal of Ancient Egyptian Interconnections*, vol. 6/2 (2014), 27-28.

31) 앞의 논문, 28.

32) Paul J. Achtemeier, ed., *The HarperCollins Bible Dictionary* (New York, NY: HarperOne, 2011), 242-243. <https://archive.org/details/achtemeier-paul-j.-the-harpercollins-bible-dictionary-revised-edition-1996/mode/2up> [2023. 05. 21. 최종 접속].

이 언급하고 있는 나병은 현대의 한센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염의 위험성이 없는 폭넓은 범위의 피부 질환을 언급하는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러한 피부질환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부정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강조한다.³³⁾ 같은 맥락에서 레위기는 성과 속의 구별을 강조하고 있으며(레 10:10).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민 16:5)로서 성서적 맥락에서 보면 성서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병의 전염(contagion) 그 자체가 아니라, 전염으로 인한 거룩함이 변질되고 오염(pollution)되어 이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스 9:1-2; 겔 44:23)이 문제였다고 필치는 해석하고 있다.³⁴⁾

한편,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질병이나 병의 원인이 하늘과 천체,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고 필치는 설명하면서 이러한 믿음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이 질병에 걸린 원인을 건강이나 위생상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 죄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악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부연한다.³⁵⁾ 필치의 해석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질병은 크게 죄와 연관이 되어 영적인 관점에서 파악이 되거나, 아니면 단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성속(成俗)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접촉성 질병으로 추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³⁶⁾

이와 같은 성속의 이분법적 상징세계는 결국 거룩한 종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예로 성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을 질병과

33) Pilch, "Disease," 135-136; "Biblical Leprosy and Body Symbolism," *Biblical Theology Bulletin*, vol. 11 (1981), 108-113.

34) Pilch, "Disease," 138-139.

35) 앞의 글, 135-137.

36) 앞의 글, 139-140.

연관하여 예를 들 수 있으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 (1) 이집트에 내려진 연쇄적인 재앙의 결과로 나타난 전염병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은 것은 기생충을 통한 기생흡충병(schistosomiasis) 혹은 가축들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살모넬라 병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2)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들이 죽은 후에 살모넬라와 같은 박테리아가 창궐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천적인 개구리의 멸절로 인한 기생흡충병의 숙주라고 할 수 있는 달팽이들이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 (3) 이의 재앙은 발진 티푸스 병을 야기했을 것이며,
- (4) 파리 재앙은 파리가 말라리아와 리슈마니아증(leishmaniasis)을 옮기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 (5) 악질이 생긴 가축병은 고대 이집트의 수인성 질병인 탄저병, 브루셀라병, 그리고 렙토스피라병과 연관될 수 있으며,
- (6) 악성 종기는 파리떼에 물리거나 유충의 침투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으로서 바로의 마술사들이 설 수조차 없었던 것은 다리와 발의 염증 때문이었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7) 우박 자체는 질병이 아니지만, 이집트인들이 가축 떼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킴으로써 감염된 가축들과 사람이 긴밀한 접촉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 (8) 메뚜기 재앙은 식량 부족 등의 이유로 치료를 지연하게 하였으며,
- (9) 흑암은 흑시 감염으로 인한 눈 질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37) 이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설명은 성서학자와 의학자가 함께 쓴 논문을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Ira Friedman and John S. Marr, "The Exodus Syndemic: The Epidemiology of the Tenth Plague," *Jewish Bible Quarterly*, vol. 45/1 (2017), 3-12. <https://go.gale.com/ps/i.do?id=GALE%7CA519900079&sid=googleScholar&v=2.1&it=r&linkaccess=abs&issn=07923910&p=AONE&sw=w&userGroupName=anon%7E3d11614d> [2023. 05. 23. 최종 접속].

(10)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은 위의 복합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이집트의 첫째 아이들이 죽는 재앙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³⁸⁾ 한편, 같은 맥락에서 블레셋과 아스돗에 임한 재앙(삼상 5장과 6장), 특히 사무엘상 6:5에 기록된 내용은 쥐로 인한 전염병의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수스만은 설명한다.³⁹⁾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질병은 종교적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종교-문화적 질병을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악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써 질병과 전염병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질병은 병리적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그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재해적인 요인이 질병과 결부되어 있지만,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깨어질 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다양한 질병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계약 백성의 거룩함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에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질병의 유형을 검토하여 보겠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질병의 종류와 예수님의 치유 방법, 그리고 이러한 치유 사역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는 구약성경의 관점과 대비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드러남을 강조하도록 하겠다.

38)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설명은 다음 학자들의 관점을 정리하여 옮겼음을 밝힌다. 앞의 논문, 3-12.

39) Sussman, "Sickness and Disease," 6-15.

IV. 신약성경(복음서)에서의 질병

중동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구약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 받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보복의 관점에서 다른 이를 해하는 그 대가로 응보적 처벌이 강조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실제 질병의 원인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종교적 믿음 체계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필치는 해석하고 있다.⁴⁰⁾ 중요한 점은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구약의 질병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혁신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기존의 종교적인 질병 개념에 따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앓을 보지 못한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이나 본인 자신의 죄로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요 9:2), 예수님은 이를 부정하였고(요 9:3),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이 사람의 죄 없음을 드러낼 것이라 대답하셨다는 점이다(출 15:26 참조).⁴¹⁾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구약의 문자적인 전통에 근거하여 개인의 질병과 죄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강조하였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통해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배척당한 사람들을 기존의 신앙 공동체로 통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구약에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해석을 파격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이야기가 전달하는 의미에 초점이 있으며, 치유의 사건을 영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통한 사회 통합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중요하다고 블롬버그(C. L. Blomberg)는 강조한다.⁴²⁾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40) Pilch, "Disease," 137-138.

41) 앞의 글, 137-138.

치유 받은 환자의 믿음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고대의 다른 치유 문헌과 구별되는 특징이 된다고 블롬버그는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마 10:1; 막 1:24; 3:10-11; 5:7), 복음서 전반에 나타나는 소경, 귀머거리, 불구, 문둥병, 고열, 혈루증, 그리고 잘린 귀를 온전케 하는 육체적인 치료, 그리고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시는 치유(막 5:35-43; 눅 7:11-17; 요 11:1-44)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⁴³⁾

블롬버그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치유 사역의 특징과 의미로서 다시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부연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1) 치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강조하여 신앙으로 치유의 문제에 접근한다(참조, 마 11:20-24; 13:58; 17:20; 막 5:34, 36; 요 4:48, 53-54; 20:29, 31).
- (2) 복음서의 치유는 비록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인간을 향하신 예수님의 연민과 연관이 되어있다(마 14:14; 20:34).
- (3) 예수님의 치유는 성과 속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병으로 인한 사회적 장벽을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참조, 마 1:41; 막 7:24-30; 눅 17:11-19).
- (4) 예수님의 치유는 전통적인 율법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불신앙의 문제를 극복한다(참조, 마 17:17; 8:10-11; 막 3:1-6; 눅 13:10-17; 14:1-6).
- (5) 예수님의 치유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요 5:14;

42) C. L. Blomberg, "Healing,"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USA: IVP Academic, 2013), 306.

43) 앞의 글, 300.

9:3).

(6)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메시아의 구원을 드러낸다(마 4:23; 9:35; 11:4-6; 12:28; 21:14; 막 1:15; 2:10-11; 7:31; 눅 7:11-17; 요 18:10-11).⁴⁴⁾

블롬버그가 강조하는 복음서 기자의 특징으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전체 복음서 내용의 31% 정도 된다고 정리하면서 메시아 구원의 신비를 강조하며, 특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인이 강조되고 있다고 본다. 마태의 경우, 주로 8장과 9장에 치유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의 메시아이시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이시며,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치유임을 강조하고, 누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배척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연민을 가지신 분이로서 영육의 치유자 되심을,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한다고 블롬버그는 설명한다.⁴⁵⁾

왈런(Clinton Wahlen)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관련하여 복음서에 나타나는 질병의 유형을 도표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⁴⁶⁾ 이 분류의 특징은 치유와 연관된 장소와 인물을 구분하고, 해당 성경의 인용 구절을 예시하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치료의 방법’으로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 하시고, 그리고 특히 ‘손을 대셨음’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복음서에 나타

44) 이 여섯 가지 치유의 특징은 블롬버그의 관점을 요약하였다(앞의 글, 300-301).

45) 앞의 글, 302-304.

46) Wahlen, “A Biblical View of Prayer and Anointing for Healing,” 34. 왈런의 분류표 제목은 “Jesus’ Miracles of Healing, Exorcism and Resurrection”(치유, 축사, 그리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기적)이다. 이 분류표는 왈런의 분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며, 형식은 입의로 변경하였다. 분류표 안에 있는 영문 번역은 직역하지 않고 서술 형식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인용은 인터넷에 있는 영문 논문에 있는 페이지를 기입하였다. https://kupdf.net/download/wahlen-healing-and-anointing_5c22af7ac2b6f5a10ae2275e_pdf [2023. 05. 23. 최종 접속].

〈표 1〉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관련하여 복음서에 나타나는 질병 유형

	치유와 연관된 장소와 인물	성경 인용 구절	예수님 치료의 방법
소경의 치유			
1.	베테스다	막 8:22-26	침, 손을 대심
2.	여리고 근처	마 20:29-34; 막 10:46-52; 눅 18:35-43	손을 대심, 말씀
3.	태어나면서 소경인 자	요 9:1-41	침, 흙, 말씀, 물
4.	두 명의 맹인	마 9:27-31	손을 대심, 말씀
문둥병 치유			
1.	문둥병자	마 8:1-4; 막 1:40-45; 눅 5:12-16	손을 대심, 말씀
2.	열명의 문둥병자	눅 17:11-19	말씀
각색 질병 치유			
1.	마비된 자	마 9:1-8; 막 2:1-12; 눅 5:17-26	말씀
2.	지체장애인	요 5:1-9	말씀
3.	손이 마른 자	마 12:9-14; 막 3:1-6; 눅 6:6-11	말씀
4.	허리가 굽은 여인	눅 13:10-17	말씀, 손을 대심
5.	백부장의 하인	마 8:5-13; 눅 7:1-10	말씀으로 치유
6.	중병에 걸린 아들	요 4:46-54	말씀
7.	베드로 장모의 열병	마 8:14-15; 막 1:29-31; 눅 4:38-39	손을 대심, 말씀
8.	혈루병에 걸린 여인	마 9:20-22; 막 5:25-34; 눅 8:43-48	옷자락을 만짐
9.	귀 먹고 말 더듬은 사람	막 7:31-37	손을 대심, 침, 말씀
10.	수종병이 든 사람	눅 14:1-6	손을 대심
11.	대제사장의 잘린 귀	눅 22:50-51	손을 대심
귀신을 쫓아내신 치유			
1.	가버나움 회당	막 1:23-28; 눅 4:33-37	말씀
2.	귀신 들린 이들	마 8:16-17; 막 1:32-34; 눅 4:40-41	말씀, 손을 대심
3.	가다라 지역 근처	마 8:28-34; 막 5:1-20; 눅 8:26-39	말씀
4.	간질병을 가진 소년	마 17:14-21; 막 9:14-29; 눅 9:37-43a	말씀
5.	병어리	마 9:32-34	설명이 없음
6.	병어리와 눈 먼 자	눅 11:14-16; 마 12:22-23	설명이 없음
7.	막달라 마리아	막 16:9; 눅 8:2	설명이 없음
8.	가나안 여인	마 15:21-28; 막 7:24-30	말씀
죽은 이를 살리심			
1.	야이로의 딸	막 5:21-24, 35-43; 눅 8:40-42, 49-56; 마 9:18-19, 23-26	손을 대심, 말씀
2.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눅 7:11-17	손을 대심, 말씀
3.	나사로	요 11:1-44	기도와 말씀

나는 질병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왈런은 신약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치유의 특징은 때때로 기적과 같은 관점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⁴⁷⁾ 그는 각 복음서의 내용은 33~44%가 치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손을 대시거나 말씀하심으로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한다.⁴⁸⁾ 참고로 왈런은 사도행전에서 치유와 연관된 기사는 4.5%에 불과하여 복음서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양이 매우 적음을 강조하면서, 또한 치유 사역이 사도들의 주요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⁴⁹⁾

왈런에 따르면, 복음서에서 치유와 연관된 주요 단어가 구원(salvation)을 의미하는 “sōzō”였다고 강조하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온전함’(wholeness)을 뜻하며, 그 궁극적인 의미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⁰⁾

왈런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전적인 신적 권위로 기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의미가 강하다고 강조하면서, 치유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자비(눅 18:38)와 믿음에 보상하여 주시는 은총(마 8:13; 9:29),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요 9:3; 11:4), 그리고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하심(눅 7:22-23)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⁵¹⁾ 왈런은 예수님이야

47) 앞의 논문, 15.

48) 앞의 논문, 18.

49) 앞의 논문, 22.

50) 앞의 논문, 19.

말로 자기 생명의 인간을 위하여 내어 주시고 심지어 자신을 치료하시는 것조차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신 진정 인간을 위한 치유자이심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참조, 눅 4:23; 23:35).⁵²⁾ 왈린은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 위주의 치유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응시’하시거나(마 6:6) ‘조용한 기도’(요 11:41-42)로도 역사가 일어났음을 부연한다.⁵³⁾

위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나병과 같은 병에 걸린 이들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으며, 열병이나 수종병에 걸린 이도 만져주심으로 온전케 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치유는 구약성경에 제사장이 질병을 관찰하고 판정하는 수동적인 입장과 비교하면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를 분리하고 공동체로부터 성과 속으로 분리하는 구약의 관점과는 달리 예수님이 환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연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낙인찍히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파악할 수 있다.

질병을 기준으로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의 분리를 오히려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합하고 연대하며, 공동체 성원 간 온전한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구원의 사건이자 사회장벽을 허물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정신이 강조됨을 증시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51) 앞의 논문, 20.

52) 앞의 논문, 20.

53) 앞의 논문, 20-21.

치유로 인간이 온전하게 됨은 결국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예표이며, 부활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과도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구약에서의 질병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성과 속의 구분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있으며, 여러 초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약에서의 질병의 문제는 치유자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고, 병을 고침으로써 소외된 이들을 신앙 공동체 안으로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 속을 구별하는 구약의 질병 개념을 넘어, 질병 때문에 어떤 이를 거룩함 밖으로 완전히 축출해 내어서는 안 된다는 통합적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질병과 연관된 해석을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공동체 윤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의 치료와 방법론에 대한 의학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치료과정을 통한 사회 통합의 정신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질병의 유무로 인간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연민을 통하여 고통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이든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을 고치셨다. 이러한 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 윤리를 위한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이 공동체를 분리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상생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접촉성 전염병과 같은 코로나 질병의 특성을 염두에 둘 때, 병리적 특성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면 예배가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은 이유는 교회가 반지성적 집단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과학은 이성적으로 질병의 원인과 그 종식을 위하여 대면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데 반하여, 교회가 반대의 관점을 고수한다면 신앙을 논하기 이전에 복음 구령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존 웨슬리는 성경과 이성 그리고 전통과 경험의 조화로운 신앙생활에 관하여 강조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성화의 과정 또한 중시하였는데, 이것이 감리교 정신의 근간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성경이 모든 진리의 시금석을 전제하면서 인간 이성을 동원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러면서도 딱딱한 교조주의로 빠지지 아니하는 경험의 요소를 웨슬리는 간과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웨슬리의 정신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대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철저하게 말씀의 진리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과학적 이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수용하고, 아울러 연민과 사랑의 연대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품고, 그리고 함께 역사를 이어 나가는 사회적 성화를 위한 공동체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교회 공동체 윤리에 있어서 복음서가 제시하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육신의 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몸의 질병 치유가 실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치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며,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

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을 치유하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은 모든 각색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 전인적이며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시며,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죽은 이를 살리심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병든 이들을 만져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의 치유는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인간은 무력하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엄중한 경고는 이러한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연관이 되어있다는 점은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진리이다. 그러나 질병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질병의 치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는 과정이라는 성경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처럼 연민과 사랑 그리고 하나 됨을 이루는 공동체 정신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교회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chtemeier, Paul J. *The HarperCollins Bible Dictionary*. New York, NY: HarperOne, 2011.
- Blomberg, C. L. "Healing."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USA: IVP Academic. 2013.
- Brown, F.,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72.
- Feder, Yitzhaq. "Defilement, Disgust, and Disease: The Experiential Basis of Hittite and Akkadian Terms for Impurit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36/1 (2016), 99-116.
- Friedman, Ira, and John S. Marr. "The Exodus Syndemic: The Epidemiology Of The Tenth Plague." *Jewish Bible Quarterly* 45/1 (2017), 3-12.
- HaselL, Gerhard F. "Health And Healing In The Old Testament."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21/3 (1983), 191-202.
- Holladay, W. L., ed.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Kahn, Dan'el. "The War of Sennacherib Against Egypt as Described by Herodotus II 141." *Journal of Ancient Egyptian Interconnections* 6/2 (2014), 23-33.
- Koehler, L., and W. 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 J. Brill, 1958.
- Pilch, John J. "Diseas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D-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7, 135-140.
- _____. "Biblical Leprosy and Body Symbolism." *Biblical Theology Bulletin* 11 (1981), 108-113.
- Smith, Virginia. *Clean: A History of Personal Hygiene and Pur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8.

Sussman, Max. "Sickness and Diseas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Yale University Press, 1992, 8-9.

Wahlen, Clinton. "A Biblical View of Prayer and Anointing for Healing." https://kupdf.net/download/wahlen-healing-and-anointing_5c22af7ae2b6f5a10ae2275e_pdf. [2023. 05. 20. 최종 접속]; https://kupdf.net/download/wahlen-healing-and-anointing_5c22af7ae2b6f5a10ae2275e_pdf. [2023. 05. 23. 최종 접속].

Wilkinson, John. *Health and Healing*.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0.

Abstract

Biblical Ethics in the Post-Corona Era

Kyoung-dong Yoo, Ph. D.

Department of Theology (Christian Ethics)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hristian worldview for the last three yea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ntact disease, COVID-19 made the church's mission, evangelism, and community life that primarily gathers as a worshipping community difficult. Some views supported in-person formats with a spirit of martyrdom; others supported contactless formats. COVID-19 is being overcome, and everyday life is being restored. However, what is a biblically correct view in the face of diseases like COVID-19 still remains a significant issue from an ethical standpoint.

This paper aims to survey what is the correct ethics for a community by analyzing diseases recorded in the Bible. This paper will briefly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diseases from a perspective of human culture, examine the aspects of diseases in the New and Old Testaments, and pro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thics of faith communities that cope with diseases.

In conclusion, this paper will highlight the spirit of the New Testament in which the people with the disease were not marginalized and cast out but were embraced

into faith communities in connection with Jesus' identity as a healer in contrast to the Old Testament's general portrayal of disease in which disease was used to differentiate holy and unholy from a religious standpoint and used as God's judgment tool along with other supernatural phenomena.

【Key Words】

Post-Corona, Biblical Ethics, Healing, Disease, Community Ethics